

마곡사 대광보전 백의관음벽화 보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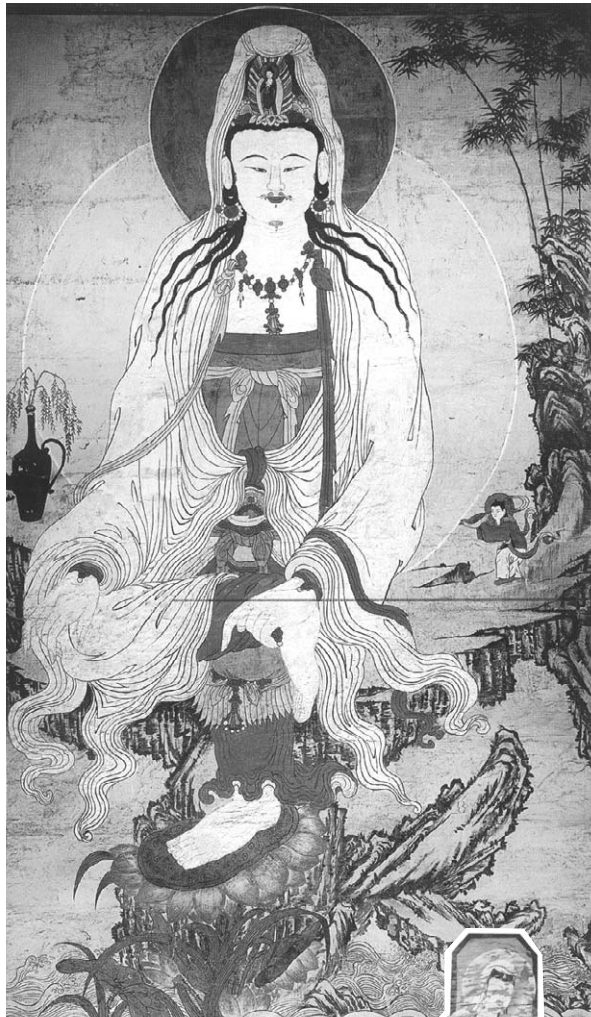
성보문화재연구원 <한국의 사찰벽화> 충청남도·충청북도 지역 발간

대부분 관광객은 등산길에 사찰이나 주변 경관을 살펴며 눈동자나 주머니를 살피며 눈동자로 지나치고, 신심 있는 참배객은 법당 참배를 하거나 기도처로 삼아 사찰을 찾기도 한다. 하지만 사찰을 찾았을 때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일까? 조금만 관심을 갖고 시야를 넓혀 사찰구석구석을 둘러보자.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불교문화재들이 우리를 반길 것이다.

충남 공주 태화산 기슭에 자리한 마곡사(주지 법웅)는 선교양종大本산으로 현재는 조계종 제6교구본사다. '불에는 마곡사, 가을에는 감사'라 할 정도로 경관이 수려해 지금도 시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다.

마곡사 대광보전은 비로자나불이 봉안된 화엄교화에 근거한 건축물이다. 불상이 불전 정면이 아닌 좌측에서 향우측을 향해 서쪽에서 동쪽을 바라보고 있어 예배 뿐 아니라 설법을 하는 법당 기능에 충실한 구조임을 보인다. 하지만 마곡사 대광보전을 찾은 사람들은 '어! 부처님이 옆으로 계신 것이 다른 법당과는 구조가 다르네' 하면서도 비로자나불 뒤편 벽과 외부 벽에 그려진 2점의 백의관음도를 거의 보지 못했다.

대광보전 외벽의 포벽에 그려진 백의관음도는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찾아보기 힘들다. 천의자락을 휘날리며 맨발로 물결위에 서 있는 모습으로, 몸을 기울여 그림 오른쪽에 합장해 있는 남승주자를 굽



마곡사 대광보전 후불벽에 그려진 백의관음도와 외벽 포벽에 그려진 백의관음도(우측).

어보고 있다. 후불벽에 그려진 백의관음도는 마곡사 벽화를 대표하는 작품이다. 고주 사이에 한지를 여러겹 발라 후불벽을 만들어 일반 화폭에 그려진 것처럼 세밀한 묘사를 보여준다. 섬세하게 그려진 안벽의 세밀한 물결과 명암 표현, 굽이치는 물결과 포말 등은 화승의 노고를 집약하게 한다.

성보문화재연구원(원장 범하이) 출간한 <한국의 사찰벽화> 충청남도·충청북도편에는 마곡사 뿐 아니라 서산 개심사 등 충청지역 사찰 건축물 15점서 그간 우리가 놓쳤던 사찰벽화들이 자세한 설명과 함께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문화재청(청장 유홍준) 지원을 받아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진행될 전국 소재 사찰건축물 벽화조사'의 2차년도 결과물인 이 책은 충청도 소재 사찰건축물을 실사해 정리한 중간보고서다.

김정민(성보문화재연구원)씨는 연구원 계획에 대해 "2006년 강원·경기·인천 지역에 이어 2007년 충청지역 조사를 마쳤다. 올해는 경상남도 지역 사찰벽화를 조사 중이며 지역특성상 2년여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사찰벽화는 그동안 건축물 일부로 여겨져 제대로 조사·연구되지 못했다. 성보문화재연구원의 계속된 조사로 사찰벽화가 회화와 건축 양식을 복합적으로 표현하는 문화재로 재조명되고 있다.

조동섭 기자

불교문화재 발굴 조각·회화 보물 지정 예고

'나주 심향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 외 15종

(재)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범하이) 나주 심향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 등 15건 불교문화재를 새로 발굴해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예고하는 성과를 이뤘다.

2005년부터 문화재청(청장 유홍준) 지원을 받아 '불교문화재 일제조사'를 시행한 연구소는 전남·광주·충북 지역 사찰에서 문화재 보호 사각지역에 놓여있던 불교 조각과 불교 회화 등을 찾아냈다.

14일 보물로 지정 예고된 문화재는 크게 불교조각과 불교회화, 공예로 나뉜다. 불교조각은 현재 알려진 건칠불(乾漆佛)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에 조성된 '나주 심향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고려 후기)' '나주 불회사 건칠비로자나불좌상(아말선조)'이다. 불교조각·건축·공예의 종합적 양상을 보이는 '구례 천은사 금동불감(아말선조)' '해남 대흥사 금동관음보살

좌상(조선전기)'와 '구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 '순천 송광사 목조석가여래삼존상 및 소조16나한상 일괄' '여수 흥국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으로 총 7건이다.

불교 회화는 전형적인 17세기 영산회상도 양식 패불화인 '진천 영수사 영산회괘불화' '해남 대흥사 영산회괘불화' '순천 선암사 서부도암 감로왕도'와 우리나라에서 희귀한 도상인 '순천 선암사 33조사도' 등 4건이다.

공예분야에서 조선시대에 제작돼 상태가 좋고 예술성이 뛰어나며 연기가 분명한 공예사 연구에 도움이 되는 '담양 용흥사 순치원년명 동종(1644년)' '여수 흥국사 강희4년명 동종(1665년)' '고흥 능가사 강희37년명 동종(1698년)' '건국 공예의 종합적 양상을 보여주는 '순천 선암사 강희39년명 동종(1700년)' 등 동종 4점이다.

한편 이번엔 불교문화재 15건



14일 보물로 지정 예고된 나주 심향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

과 함께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오계관방지도', 성종 원년(1470) 4월 간행한 '묘법연화경 권제 1-2', 고려 충숙왕 3년(1316) 8월 보현사 석연 스님이 주선해 개판(改版된) 불교의식집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詳校正本慈悲道場儀法) 권 제9-10' 등 2건 총 18건이 지정예고됐다.

조동섭 기자

우리 학회는 | (3)불교학연구회 ksbs.re.kr

불교 대중화와 저변확대 꾀하는 열린 학술마당

불교학연구회(회장 본각)는 1998년 9월 불교연구의 상호대화와 비판을 통해 학문 발전을 기약하고자 출발했다. 당시 한국종교학회 불교분과였던 학회는 2000년 지금의 불교학연구회로 창립됐다. 해주 스님(동국대)이 초대 및 2대 회장을 지냈고, 이종보 교수(전남대)가 3·4대 회장을 역임했다.

불교분과 시절부터 1년에 6회의 월례발표회, 춘계·추계 2회의 정기발표회와 동계·하계 워크숍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치러온 왕성한 활동은 교계 학회들의 자극과 모범이 돼 왔다. 또 학회 성과가 내실있다고 보니 부정기

간행된에도 <불교학연구>는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로 선정됐다. 학회 회원은 석사 과정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3만원 연회비, 30만원 영구회비를 부담하면 정회원 자격을 얻는다. 학회 논문 발표와 게재는 정회원에 한한다. 보편적 학문에서의 불교연구를 통해 일반학문 속에서 불교분과 위상을 높이고 있다. 학문적 배경·나이·지위를 떠나 오직 진리에 입각해 말하고, 어떤 견해든지 학문적 논거를 갖춰 발표할 수 있다는 열린 학술활동을 지향한다.

현재 회장을 맡고 있는 본각 스님(중앙승가대)은 동국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고마자와 대학에서 회임을 전공한 대표적인 비구니 학자다. "불교학을 좀 더 대중적이면서도 보편적인 학문이 되도록, 명실상부한 인문학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며 불교의 대중화와 저변확대를 강조한 스님의 발언은 지금도 말없이 진행 중이다.

조동섭 기자

한편 1월 26-27일 여주 신특사에서 '불교와 여가문화'를 주제로 동계 워크숍을 연다. 학회 회원 뿐 아니라 배우자 및 직계가족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도록 개방한 점이 특징이다. 참가신청: bukyohak@yahoo.co.kr

'국보 1호 남대문' 이제 '국보 남대문'으로 바뀐다

문화재청, 문화재 등급·분류체계 개선 추진

국보 1호 남대문, 보물 1호 흥인지문이 국보 남대문과 보물 흥인지문으로 바뀐다.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문화재 등급·분류체계 개선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0일 밝혔

다. 유 청장은 기자 간담회를 통해 "현재 문화재 지정제도는 일본 제도를 따른 1962년 문화재보호법을 근거로 하고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등급·분류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

현재는 국보, 보물, 중요무형문화재, 중요민속자료,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등으로 모호하게 분류돼 있다. 앞으로는 국가유산을 문화유산, 자연유산으로 나누고, 국보를 최상위로 하위는 보물·무형문화재·천연기념물·명승의 4가지로 단순화된다.

따라서 그동안 국보로 보물만 승격

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사적과 천연기념물 등도 국보로 지정될 수 있게 됐다. 또 국보와 보물에 한해 현재의 일련번호를 없애고 대신 사적 제0호, 미술문화재 제0호 등 하위분류 번호를 매기게 된다.

문화재청은 각계 의견을 수렴해 올해 하반기 중 관련법의 개정·입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조동섭 기자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 2008학년도 신·편(학점은행제)입학 모집

고등교육법에 의한 정규대학이 아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령에 의한 학점은행제 교육 훈련기관 임

1969년 설립한 옥천범음회로부터 1973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범패"로 지정이 되어 1987년 "영산재" 보존회로 단체로 지정 되었습니다. 금번 2007년 9월 1일부터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행하는 학점은행제를 도입하여 불교의식과 불교음악, 불교무용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 영산재의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 등록을 향한 인재 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일반인 및 학습을 모집합니다.

모집학과 및 정원(신입학,수료과정)

모집학과	강의내용	요일	시간	교수진	모집인원
상주권공	상주권공과정	월,화	오후4~7	조인각	30
각 배	각배과정	목	오후1~7	이기봉	30
영 산	영산과정	금	오후1~7	마일운	30
불교무용(작법)	바라/나비/범고춤	수	오후1~7	한해사	30
불교의식(실기)	시련/대령/관육 등	목	오후1~7	마일운	30
불교의식(이론)	불교의식	화	오후1~4	활안현정	재학생
불교의식(연구)	깃소리 전문반	수	오후1~3	김구해	졸업생
불교음악(무용이론)	불교음악/불교무용이론	월	오후1~4	김법현	재학생

모집학과 및 정원(학점은행제)

모집학과	강의내용	요일	시간	교수진	모집인원
범패실습 I	영산과정	금	오후1~7	마일운	30
영산재의불교예술특성	불교음악/불교무용이론	월	오후1~4	김법현	30
영산재의원리와방법	불교의식	화	오후1~4	활안현정	30
영산재의레컬처 I	상주권공과정	월,수	오후4~7	조인각	30

모집학과 및 정원(편입학)

모집학과	강의내용	요일	시간	교수진	모집인원
각 배	각배과정	목	오후1~7	이기봉	약간 명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응시 자격

수료과정 : 승려 및 일반인, 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련학과(음악과, 무용과 등) 교역자 및 일반인

학점은행제 :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소지자(대학교 중·퇴자 가능) 기타 시간제 등록 및 학점은행제 타 기관 수강자

편 입 학 : 동일계열 상주권공 수료자

제 출 서 류

▶수료과정 :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1부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반명함판 사진 3매 ·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 1부

▶원서대 및 전형료 : 50,000원

▶학점은행제과정 :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1부 · 반명함판 사진3매,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편 입 학 :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1부 ·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 1부 · 반명함판 사진3매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동일 계열 상주권공 수료증 사본 · 면접 후 입학. 면접 일정 개별 통보

전 형 일 정

2008년 1월 2일 ~ 2008년 2월 15일 까지

원서교부 및 인터넷 접수처 본교 행정처 및 홈페이지 접수

합격자발표 본교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특 전

1. 재학생 중 학사변동에 이상 없을 경우 4년 과정을 정상 수료 시 종단이 실시하는 습의교육 및 합동 득도 수계산람에 참가할 수 있는 요건을 부여
2. 태고종 승려에 한하여 2급 정포교사 자격증을 수여
3. 출가승려(법계 미품수자)로서 학사변동에 이상 없을 경우 4년 과정을 정상 수료 시 태고종 승려에 한하여 중덕법계를 품수
4. 졸업자에게는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회원 및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 지정
5. 신입생, 재학생 성적 우수자 장학금 부여, 국내외 공연 시 우선 선발 성적우수자에게 각종 장학혜택을 부여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

120-15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동 1번지 봉원사내
TEL 02)392-3234, FAX 02)392-3239, 홈페이지: http://www.okchunbud.kr/